

우리나라의 성문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도서관장
차 장 섭

< 목 차 >

1. 머리말
2. 열린 공간의 성
3. 닫힌 공간의 성

1. 머리말

성(性)은 인간의 근원으로 본질적으로 숭고한 것이다.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숭고하면서도 가장 추악하게 소모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성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창조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비합리적으로 이용될 때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문화에 대한 표현 방법도 열린 공간에서의 표현 방법과 밀폐된 공간에서의 표현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 열린 공간에서 성문화는 민간 신앙의 형태, 줄다리기 등과 같은 놀이의 형태, 탈춤과 같은 민속 연희의 형태, 풍수지리와 같은 사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향유되었던 성문화의 일면은 춘화(春花) 등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2. 열린 공간의 성

인류에게 있어서 성은 숭배 대상이었다. 원시미술에서 민속신앙에 이르는 성의 표현은 일차적으로 풍요(豐饒)와 다산(多産)을 기원하는 상징이었다. 성(性)은 만물의 근원이다. 성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성(性)에 대한 숭배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 즉 구석기시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는 지속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게 공통으로 나타난다.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어떤 민족에게도 이 같은 의식은 살아 있다. 결국 성(性)에 대한 숭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역사에서 성을 표현한 가장 오래된 유물은 오스트리아에서 출토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이름 지워진 여체 조각상이다. 2만-1만년 전 후기 구석기시대의 유물이다. 조각상은 얼굴이나 팔다리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위인 둔부와 유방이 강조되어 있다. 11cm에 불과한 작은 크기인 이 조각은 아마도 들고 다니면서 아기 낳기를 기원하는 용도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원시미술 가운데 성(性)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암각화이다. 우리나라에서 암각화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울산 반구대 암각화이다. 이 반구대의 암각화는 기하학적인 추상문

양이 주축을 이루는 다른 지역의 암각화와는 달리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암각화에는 10여명의 인물상이 등장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왼쪽 맨 위에 거북이 세 마리와 함께 서 있는 인물상이다. 옆모습을 하고 있는 이 인물상은 두 손을 머리에 대고 무릎을 약간 굽힌 자세인데, 양 가랑이 사이로 남근(男根)을 잔뜩 받기시켜놓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인물상은 우리나라에서 남근을 드러낸 첫 사례로써 성기숭배신앙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남근을 드러낸 표현은 풍어제나 산신제를 지내는 민속으로 지금도 널리 알려져 있다.

청동기시대는 농경문화의 정착과 계급사회가 본격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가운데 농경문화의 발전된 생활상과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농경문 청동기이다. 이 유물은 그 기와집의 가옥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확한 용도는 알 수가 없다. 앞면에는 나뭇가지에 앉은 새가 음각되어 있고, 뒷면에는 농사짓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뒷면에 그림 가운데 오른쪽에 파비질을 하는 인물상이 있는데, 양 가랑이 사이에 남근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이는 성기 숭배를 통해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였던 당시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 면의 새 그림은 지금의 솟대신앙과 연결된다.

토우(土偶)는 흙으로 만든 인형을 말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의 형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동물이나 생활 용구, 집 등 모든 것을 본떠서 나타낸 것을 일컫는다. 고대의 토우는 크게 장난감으로 만든 것, 주술적인 우상(偶像)으로 만든 것, 무덤에 넣기 위한 것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토우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지역이나 각기 성격을 달리 하면서 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의 토제 유물로 신라토우가 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독립된 형태의 토용(土俑)이 보인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그 예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백자로 만들어 무덤에 넣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흔히 명기(明器)라 부르며 인물, 동물, 생활용기 등이 만들어 졌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신라시대의 토우이다.

신라의 토우는 토기에 부착되어 있는 토우(土偶)와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토용(土俑)으로 구분된다. 토기에 부착되어 있는 토우는 기마상(騎馬像), 배를 탄 사람, 수렵하는 사람, 성교중인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등 다양한 모습의 인물상들이 있다. 그리고 개, 멧돼지, 말, 뱀, 개구리, 토끼, 용, 호랑이, 원숭이, 각종 새, 각종 물고기의 모습 등 다양한 형태의 동물상이 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토우에는 사람과 말, 소 등의 모습이 있다. 그런데 이들 토우 가운데 남녀상과 남녀 성교상이 많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들 인물상들을 살펴보면 성기를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거나, 남녀가 성교하고 있는 모습, 임신부, 심지어는 출산중인 여인의

모습까지도 있다. 이를 통해서 신라인의 생활상과 성에 대한 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신라의 토우는 무덤의 부장품으로써 사자(死者)가 저승에서 재생하여 영생(永生)하도록 기원하는 장송의 한 장면이다. 성적 결합을 통한 재생·영생의 기원은 동물이 아니라 바로 죽은 그 사람이다. 따라서 토우의 인물상은 생산력과 재생력을 지닌 성기를 노출하고, 성적 결합을 통하여 고인의 재생을 기원하였던 것이다. 즉 신라 토우의 각종 성애상(性愛像)은 성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탄생을 기원하고 그러한 과정을 모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신라의 토우에는 남자의 성기(男根)를 노출한 남자상과 여자의 성기(陰戶)를 노출한 여인상, 남녀가 결합중인 남녀 성교상이 많다 이들 토우는 각기 나름대로 몸매, 자세, 표정을 짓고 있다. 성기를 노출한 남자 토우의 공통점은 남근이 신체의 균형에 비해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인물상에서 남근을 드러낸 것은 남성 성기의 무한한 재생력, 생산력, 번식력의 상징적 표현이다. 여성 토우상은 흉부에는 유방이 달리고 하체에는 음호가 뚫려 있으며, 혹은 임신부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다. 여성의 성기를 과다하게 노출한 것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다. 남녀의 결합인 성행위의 본질은 생명의 탄생이다. 신라의 토우에서 결합된 남녀상을 통해서 죽은 이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원하였던 것이다.

민속이나 민간신앙의 하나로 성기에 대한 숭배는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성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남근석에 대한 숭배이다. 성 숭배의 유형은 대개 실제 성기 모양을 만들거나 이와 비슷하게 생긴 암석, 선돌 등에 대한 성기 암석 신앙, 당제의 신물로 봉납되는 모형 성기 신앙, 자연지형에 성적 의미를 결부시킨 풍수도참신앙 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암탑과 수탑, 여근암과 남근암, 성기바위, 좇바위와 씹바위, 공알바위, 처녀바위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성기숭배 사상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살펴보면 남근 조형물, 무교·불교와 결합된 성, 성기를 닮은 자연지형물 숭배신앙, 남근형의 마을지킴이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서도 성신앙적인 조형물의 백미는 역시 남근형으로 조각한 사례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삼척 해신당의 나무로 깎은 남근목과 정읍·순창·남원·임실 등지의 남근석은 그 소재가 성기여서 그렇지 조각적인 사실미와 예술성을 뽐내고 있다. 조선후기에는 남근석을 비롯한 성신앙적인 조형물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그것이 불교·무교와 결합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후 불사의 중흥과 함께 불교에 민간신앙적인 요소들이 수용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사찰 입구에 장승이 들어서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근석이나 여근석 같은 성신앙적인 조형물이 들어서거나, 경내의 특정 바위나 계곡이

성신앙과 결합하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성신앙은 조각적인 조형물도 있지만 자연물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성신앙에서 여성의 성기표현은 대부분 산이나 계곡, 바위틈, 나뭇가지상의 구멍과 같은 자연물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남근석과 같은 성신앙적 조형물은 그 기능이나 의미에서 장승이나 벼수화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선돌 세움식의 형태감이 유사하고, 장승과 남근석이 함께 세워져 동제의 중심이 되거나 마을 지킴이 역할을 한다는 데서 그러하다.

우리 조상들은 남근석이나 여근석같은 성기 조형물을 중심으로 동제(洞祭)의 한 전통을 만들어 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듯이 마을 공동체의 의례나 그 속에서 벌어지는 놀이에서도 성(性)은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그러한 공동체 문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한 행사가 줄다리기이다. 줄은 암줄과 솥줄 두 가닥으로 나누고, 서로의 줄머리를 올가미처럼 둥글게 틀어 ‘도래’라고 불리우는 고리모양으로 만든다. 널찍하게 만든 둥근 암줄의 도래에 머리가 좁은 솥줄의 그것을 끼우고 비녀목으로 고정하게 된다. 좁고 넓은 각각의 도래 형태는 남녀의 선기를 상징한다. 그리고 줄을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은 성행위를 암시한다.

3. 달힌 공간의 성

춘화는 성(性)을 표현한 그림이다. 예술은 인간의 창조적 행위이고 삶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성은 본능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삶의 요소이다. 따라서 인간 삶의 근원인 성(性)은 예술작품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춘화는 남근석(男根石)과 함께 우리나라 조상들이 남긴 성문화를 대표한다. 남근석이 민중의 삶이 배여있는 민속미술의 독특한 조형물이라면, 춘화는 에로스 미술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생활신앙으로서 남근석의 형태감은 공동체문화의 당찬 힘을 드러내고, 춘화에 비친 성희의 표현과 풍자성은 근대적인 인간으로 발돋움하려는 시대정신을 적절히 시사하고 있다.

춘화는 우리 조상이 남긴 문화유산이며, 예술작품이다. 성을 표현한 예술작품을 에로틱 아트(erotic art) 즉 예술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즉 외설로 인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항상 논란이 있어 왔다. 이는 예술과 외설의 기준이 시대와 장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금기에 따라서 상당히 신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로틱 아트(erotic art)는 성을 주제로 다루거나 관능적으로 표현한 미술을 말하는 것으로 성행위의 직접적인 표현을 통하여 노골적이고 단지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포르노

그라피(pornography)와는 구별된다. 즉 포르노그라피는 성의 기능적인 측면만을 내세우고, 있을 수 없는 성의 외양을 마치 현존하는 것처럼 표현한다. 그리고 외설이 대상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주는 반면에 예술은 대상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넓혀간다. 우리나라의 춘화는 과장이 있으면서도 억지스럽지 않고, 살짝 숨기면서도 개방적이며, 해학과 풍자를 통해 여유와 순박한 건강미를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춘화는 우리나라 미술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하고 친근한 미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예술작품이다.

춘화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세계 각 국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춘화를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해 보자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춘화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양 즉 유럽의 에로틱 아트는 관능미의 극치를 표현하기 위해 과장되게 표현하며, 자극적이고 도발적이다. 보다 원색적이고 강력한 터치를 하였다. 초기에는 신화나 성경의 내용을 소재로 하면서 실제로 성의식을 자극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서양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을 불허한다. 작자의 의도만 있을 뿐 독자의 상상력이나 추리력은 배제함으로써 직설적이다. 진정한 사랑은 정신과 육체가 모두가 하나되는 것이다. 서양의 에로틱 예술은 정신적인 것이 배제된 채 동물적인 육체의 결합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동양은 정신과 육체 모두가 결합하는 인간적인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서양에서 에로틱 아트의 시작은 그리스의 도기에 나타난 장식화이다. 그리스 도기에 나오는 장식화는 생식기를 밖으로 드러낸 표현을 하였다. 사랑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였던 그리스인들은 건강한 생식기야말로 삶을 지탱케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르네상스 시기의 성에 대한 표현은 대개 종교에 의해 속박된 인간성의 회복에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신화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인물의 누드화가 유행하였다. 우리나라 춘화가 나타난 시기와 같은 서양은 로코코미술이다. 로코코 미술은 일반적으로 회화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의 다른 그림과 비교해서 등장인물의 얼굴표정은 지나칠 정도로 단순화되었다. 반면에 여인의 둔부와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로 이어지는 치마 속의 세계는 지나치리만큼 꼼꼼하게 묘사하였다.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는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만을 강조하는 속화적인 표현이 강하다. 배경을 생략함으로써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야 할 것과 보여주어야 할 것만을 그리며 상징과 같은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동양이 얼굴표정과 배경까지도 에로틱하게 표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즉 동양에서는 간접적이면서 은근한 맛을 주는 데 비해서 서양은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자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인도(印度)의 그것은 카마스투라(Kama-sutra)이다. 카마스투라는 현존하는 인도의 가장 오래 된 성애(性에愛) 관한 문헌으로 여러 종류가 있으나 철학자 바차야

나가 쓴 것으로 알려진 카마수트라가 가장 유명하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되었고 성립연대는 400년경으로 추정된다. 인도에서 성애는 예로부터 실리(artha) 도덕(dharma)과 함께 속세의 3대 목표였는데 이 책은 당시까지의 성애에 관한 학설을 모은 것이다. 성애의 기술을 가르치는 책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고대 인도 사회의 생활을 아는데도 중요한 문헌이다. 그런데 인도의 카마수트라는 예술적인 면보다는 방중술에 가깝다. 따라서 사람들의 표정이 감정의 표현이 거의 없어서 매우 도식적이다.

페르시아도 인도와 같은 계통이다. “성기(性器)에 축복내리신 알라는 칭송받아 마땅하리. 알라는 여성의 그곳에 환희를 심어주고, 여성이 남성에게 의해 관통되었을 때 그녀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시네. 아울러 어떤 남성도 여성의 그 자연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평화를 얻지 못하네” 이슬람 문화권의 이야기들을 채록한 <<샤이흐 네프자위의 향기로운 정원>>에 기록된 구절이다. 이슬람세계에서는 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쾌락과 연희를 환상과 실제로 굳이 나누지 않고 가능한 한 그 둘의 합일을 추구하였다. 상상속에서 벌어지는 성애의 주인공을 자임하며 그 환상을 현실 속에서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도취되고 도취시키며 자신과 타인이 구별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나뉘지 않는 성, 곧 섹스 그 자체가 이미 완성된 신의 세계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여기 성스러운 상징, 이슬람세계의 영물인 코끼리가 그려져 있다. 카릴 곧 왕만이 소유할 수 있는 코끼리는 현실의 권력과 권위를 동시에 상징한다. 그런데 이를 꽉 채우고 있는 것은 다섯쌍의 남녀와 동성애를 즐기는 한 여인이다. 화려한 장신구로 온몸을 감싼 남녀들로 묘사된 것으로 보아 귀족 또는 왕족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묘사된 다섯 쌍의 남녀가 각기 다른 다섯가지의 체위로 교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색조로 그려진 이 그림에서 공교롭게도 남녀의 성기부분만 먹선으로 덧칠하여 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표정과 도식적인 표현) 이처럼 페르시아의 에로틱 아트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방중술을 중심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日本) 춘화는 우키요에(浮世繪)의 한 부분으로 유행하였다. 우키요에(浮世繪) 일본 도쿠가와 시대(徳川時代)에 유행하였던 중요한 미술의 장르.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에 창작되었던 에마키(繪卷)의 사실주의적 설화와 모모야마 시대(桃山時代)와 도쿠가와 시대의 원숙한 장식적 화풍을 혼합한 미술양식이다. 이 양식은 또한 토속적이면서도 이국적인 리얼리즘 요소도 아울러 갖추고 있다. 우키요에 양식으로 그려진 초기의 작품들은 병풍화였는데 일반적으로 낙관이 없었다. 이 작품들은 에도(江戸 : 지금의 도쿄)나 다른 도시지역의 유곽(완곡한 표현으로는 우키요<浮世> 덧없는 속세라는 뜻)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유명한 고

급 창녀와 유녀(遊女), 가부키(歌舞伎)배우와 연극의 유명한 장면, 도색적인 내용 등을 주제로 하였다.

그러나 병풍화보다 더 중요한 형식은 목판화인데, 우키요에 화가들은 목판화를 최초로 이용한 사람들이다. 도시의 일상생활상과 시장에 대해 새로이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우키요에 판화는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키요에 최초의 대가로 꼽히는 사람은 히시카와 모로노부(菱川師宣)이다. 단일색상에서 2가지 색상의 채색판화로 이행한 것은 오쿠무라 마사노부(奥村政信)에 의해서였으며, 스즈키 하루노부(鈴木春信)는 1765년 여러 벌의 목판을 이용한 다채색 판화를 도입하였다. 우키요에 양식의 진수는 우타마로(歌麿), 호쿠사이(北齋), 히로시게(廣重)의 작품에서 구현되었다.

일본 춘화의 특징은 첫째, 남녀의 성기가 지나치게 과장되게 묘사된다는 점이다. 둘째, 등장인물이 결코 완전한 나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셋째, 설정된 성행위의 상황과 화면에 등장하는 소도구 그리고 남녀를 불문한 체위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일본춘화가 같은 동양권인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그것과 확연히 구분되는 이유는 현대의 포로노 산업이 주도하는 시각물처럼 최음(催淫)을 목적으로 한 산업생산방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주로 판화의 기법에 의해 제작되고 대량으로 복제되어 널리 퍼진 일본의 춘화는 일찍이 생산과 보급, 수요와 공급에서 산업화되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은 잘 연출되고 다른 것과 비교하여 색다른 맛을 내야만 상품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결국은 표현이나 뻘한 상황설정은 사라지고 상상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본은 남녀간의 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했고, 성애를 보편적인 일로 이해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성을 감추기보다는 개방적으로 드러내는 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성에 대한 일본인들의 의식은 굳이 그림에서 성을 암시나 상징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은 명나라부터 춘화가 유행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춘화는 궁궐을 배경으로 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춘궁화(春宮畵)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중국의 춘궁화는 조금은 음흉하고 느끼한 느낌을 준다. 우리의 춘화가 솔직 담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국 우리나라 춘화의 특징은 은유성, 상징성, 해학성, 풍자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